



대한체육회는 17일 정책자문기구인 스포츠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스포츠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대한체육회, 1차 회의 개최... 공동위원장에 한남희·김로한 교수

대한체육회는 17일 정책자문기구인 스포츠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개혁위원장은 한남희 고려대 교수, 김로한 경희대 객원교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체육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체육단체의 투명

성과 책임성 강화 △체육인 인권·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체육단체 자립기반 강화 △학생·선수·지도자 운동 환경 조성 △생활체육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개혁위원회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의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야구 한일전, 11월 15~16일 개최

류지현호, WBC 대비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이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해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본야구기구(NPB)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에서 한일 대표팀 평가전 개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허구연 KBO 총재와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NPB 총재,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이 참석했다.

평가전은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된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한일 대표팀 평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O는 “포스트시즌 종료 후 야구에 목마른 양국 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내년 3월 WBC 참가를 앞두고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실력과 컨디션을 점검할 무대가 필요한 양 리그 사무국의 뜻이 일치해 평가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류 감독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 국제대회 데뷔전을 치른다.

류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 국내 선수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해 WBC 대표팀 선수 선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WBC에서 맞붙을 일본 대표팀 전력 분석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3월 도쿄돔에서 개최될 WBC 1라운드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C조에 편성됐다. 2023 WBC에서는 일본, 호주에 져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다.

한편, 류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한일 평가전은 제가 대표팀 감독에 부임한 뒤 치르는 첫 국제경기 데뷔전”이라며 “내년 3월 WBC를 약 3개월 앞두고 치르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 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류 감독은 “평가전 두 경기는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최종 엔트리에 선발할 선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전력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감독은 대회 시작부터 상대로 만나는 일본에 대해 “여러 국제대회를

코칭스태프로 참가하면서 일본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했다. 일본은 매우 세밀하면서도 파격을 겸비한 강한 팀이다.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팀이 분명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팀도 최상의 전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해 이번 평가전은 물론 WBC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선수 구성 계획을 묻자 류 감독은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도 있다. 아직 시즌 도중인 만큼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의 컨디션을 봐야 한다”면서도 “그 선수들이 부상만 없다면 내년 3월엔 최강의 멤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국장애인탁구대회銅 2개 쾌거

장수장애인체육회, 경남장애인탁구회장배 대회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남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 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장수군을 대표해 출전한 백영복 선수(TT3 체급)와 김준오 선수(TT5 체급)가 각각 남자 단식 부문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대회는 랭킹점수 60점이 부여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은 물론 보호자, 코칭스태프,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열린 경쟁을 펼쳤다.

체급별 개인 단식 종목에서는 1



위부터 3위까지 메달이 수여됐으며 치열한 경기 속에서 장수군 선수단은 뛰어난 집중력과 후력을 발휘해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군,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유치

ITF 투어대회 20~27일 개최

중국 등 300여명 선수단 참여

순창군이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2025 ITF 순창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대회로,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8세 이하 주니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무대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약 300여명의 선수단 등이 순창을 방문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테니스장 시설을 규격에 맞춰 정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예선전이 진행되며, 22일부터 27일까지는 본선 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본선 무대에는 각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주니어 유망주들이 진출해 수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2025 ITF 순창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대회'가 열린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제대회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순창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회 개최로 인해 지역의 관광, 숙박, 외식 등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단순히 국내 대회를 개최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와 국제대회 유치 등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스포츠로 도약하는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홍명보호, 6월 이라크 원정경기 바스라서 개최... 전세기 추진

이라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9차전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이라크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9차전 원정 경기를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치른다.

1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오는 6월5일 열리는 이라크와의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 장소로 바스라가 확정됐다는 서한을 받았다.

한국은 오는 6월5일 이라크와 북중

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 뒤 같은달 10일 쿠웨이트와 B조 10차전 홈 경기를 벌인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6월 2연전으로 마무리된다.

6월 이라크 원정은 홍명보호엔 북중미행을 결정할 중요한 일정이 될 전망이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한국은 지난 3월 안방에서 치른 오만, 요르단과의 7~8차전에서 모두 1:1로

비기면서 본선 진출 조기 확정이 이뤄졌다.

물론 여전한 3차 예선 B조 1위(승점 16)인 한국은 6월 이라크, 쿠웨이트와 2연전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해도 다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2위까지 주는 북중미행 티켓을 거머쥔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협회에 선수단을 최소화하고, 방탄 차량을 마련하는 등 안전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이윤정

이명신

Bennett · Milhaud · Arensky · Bolcom

A Journey Through Sound

TU:LEE
이윤정·이명신
PIANO DUO
RECITAL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25.4.18 FRI
7:30 PM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룸 후원 | 전주매일신문 Ummx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티켓 | 전석 2만원
예약 | *투리피아노두오리뷰를 검색 예약 바로가기